

대면 탄력받는 동아리 남은 과제는

황보종덕 기자 whd9223@khu.ac.kr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위축됐던 대학의 학생자치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2년에 걸친 사회적 단절로 인해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무너진 대학 생활을 재건하려는 기대로 해석된다. 특히 동아리는 탄력적 운영을 하며 학생 교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비대면 시기 동안 각 동아리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동아리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변동되는 지침, 부족한 친목 아쉬움만 남은 활동

그동안 동아리 운영에 걸림돌이 된 것은 대면 활동의 위축이었다. 대면 활동이 불가하거나 축소되면서 학생 간 교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대면 활동이 필수적인 공연·체육분과 동아리들은 공연과 대회는 물론 연습조차 취소해야 했다. 그나마 이어지던 동아리 운영도 매번 변동되는 방역 지침으로 일정을 연기하고 취소하는 등 어려움에 빠졌다.

댄스동아리 ‘발광’의 이수진(철학 2019) 회장은 “공연 계획이 정해진 상황에서 지침 변경, 집합 금지 등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2020년에는 3개월간 준비한 정기 공연이 전날 취소되기도 하는 등 내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냈다”고 토로했다. 체육분과 동아리들은 정기 훈련이나 대회 운영 등 대면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 요트동아리 ‘KHYC’ 이재우(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18) 회장은 “인원 제한으로 방학마다 진행한 해양 훈련을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두 번밖에 갈 수 없었다”며 “신입 부원들의 실력이 이전 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내시설 폐쇄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부 체육분과 동아리는 거리두기 지침에 연습시설 부재가 더해져 활동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또 공연분과 동아리는 매번 시설 연습실을 빌려 활동해야 했다. 발광 이수진 회장은 “연습실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해 회비와 사비 사용이 많아졌고, 이는 부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다”고 전했다.

동아리 활동에 뒤따르는 친목 활동 역시 불가능해졌다. 방역지침에



대면 활동을 재개한 동아리.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발라드림, 발광, 경희극장, KHYC 순



(사진=해당 동아리 제공)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생기면서 MT, 조모임 등 친목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비대면 혹은 소규모 행사가 준비되기도 했으나 대면 행사만큼의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영화제작동아리 ‘빛사냥’ 박지민(디지털콘텐츠학 2020) 회장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만큼 구성된 팀원 간 단합이 중요하다”며 “촬영 후 진행했던 회식을 한동안 하지 못해 부원들끼리 친해질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고 전했다. 발라드동아리 ‘발라드림’ 장주원(정치외교학 2020) 회장은 “동아리는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 교류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이 꺼졌던 동아리 자치 위기에도 활로 찾으려

물론 각 동아리는 열악한 상황을 기회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연극동아리 ‘경희극장’은 많은 사람 앞에서 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스트리밍 ‘릴레이 독백 챌린지’를 진행했다. 릴레이 독백 챌린지는 동아리 부원들이 돌아가면서 ‘나의 아저씨’, ‘괴수꾼’ 등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직접 연기하는 방식으

로 이어졌다. 경희극장 이지수(경영학 2020) 회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가 결집한 덕에 연습 시간을 2배로 늘리는 등 공연과 연기 준비에 한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동아리의 활동 방향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 발라드림은 그동안 크게 사용되지 않던 SNS 채널을 활성화했다. 보컬 연습을 넘어 ‘발라드림 플레이리스트’라는 세로라이브를 촬영하고, 인스타그램 릴스 노래 챌린지 등을 진행했다. 촬영, 녹음, 믹싱, 마스터링 모두 자체 진행하며 비대면 시기에 맞춰 보컬동아리의 입지를 다졌다. 부원이 돌아가며 명곡을 소개하는 ‘나만 알기 아까운 노래’란 카드 뉴스도 제작했다. 이어 동아리 정기 공연에 참여한 부원들의 보컬 무대 각각을 촬영해 제작한 ‘스테이지 클립’ 영상을 유튜브에 선보이기도 했다. 스테이지 클립에는 제6회 정기 공연의 ‘보통의 하루’, ‘보고 싶다’ 제5회 정기 공연의 ‘서른 즈음에’ 등 부원들의 보컬 무대가 담겼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간 동아리도 있었다. 발광은 거리두기 지침에도 댄스배틀, 정기 공연, 올 장르 댄스 프로모션 등을 모두 진행했다. 발광 이수진 회장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콘텐츠를 고민했다”며 “방역 수칙과 인원 제한을 철저히 준수하되 소수

로라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지속적인 활동의 원동력을 설명했다.

대면 기조 변화 흐름 동아리 운영 새 물결

최근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동아리 자치 복원을 위한 노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는 변화된 정부지침에 맞춰 지난 4월 ‘학생회관 개방 및 동아리방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존 평일에만 개방됐던 학생회관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방 최대 시간인 23시 이후 활동공간이 필요한 동아리를 위해서는 학생회관 야간 개방 사전신청제가 마련됐다. 동아리방 사용 가능 인원 제한도 삭제됐다.

또 총동연은 학생회관 시설점검과 보수를 진행하고, 각 동아리방에서 필요한 가구 공동구매를 하는 등 구체적인 공간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제39대 총동연 올인은 2차 대표자회의 회의록을 통해 “활동 장소의 부재는 동아리 활동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학생회관 개방은 대학 사회의 진정한 재출발을 의미한다”고 전한 바 있었다.

대면 전환이란 기대감에 더해 각 동아리 대표 또한 동아리 운영 회복을 위해 나서고 있다. 발광 이수진

회장은 “상황이 나아진다면 회기와 전(회기 댄스동아리 연합 댄스배틀), 대동제 등 공연을 속속 진행할 것이다”며 “대면 활동 위축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발라드림 장주원 회장 또한 “MT, 한강 나들이 및 버스킹 등 야외활동뿐 아니라 동아리 간 상호 교류가 적어 그동안 아쉬웠다”며 “상황이 풀리면 타 동아리와의 연합 공연 등 교류 활동을 꼭 진행하고 싶다”는 활동 의지를 전했다.

대면 전환과 동아리 자치 앞으로의 과제

본격적인 대면 전환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성원들은 각 학생대표의 차기 역할과 행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동아리 자치 복원의 첫걸음은 ‘동아리 문화의 재정착’이다. 동아리를 이끄는 학생대표는 불안정했던 활동과 운영 체계를 완전한 대면 체제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이를 위해 동아리를 이끄는 학생대표들은 지난 활동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래여울 정동영(정치외교학 2017) 회장은 “비대면-대면 간 과도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안정적인 대면 전환을 위해 대면 시기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꼼꼼히 조사해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정리한 내용을 사진 등 시각 매체를 주로 사용해 전달하면 현재와 미래 부원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는 대면 전환 과도기에 생길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발라드림 장주원 회장은 “동아리 자치의 시작은 결국 각 동아리로부터 비롯된다”며 “학교 측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대면 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동아리별로 상황 대응 매뉴얼 체계를 갖춰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발라드림 장 회장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앞서 동아리 자체적으로 위기 대처 매뉴얼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언제든 이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 유연한 상황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리 정신이 단절되지 않게 우리는 각 동아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며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언급했다.